

# “북구민과 함께 2025년 대전환의 길을”

## 2025 광주 북구 현황·주요 역점사업

### #현황

- 인 구 수 42만4535명
- 면 적 120.3km<sup>2</sup>
- 행정구역 27개동 627통 3485반
- 직 원 수 1321명

### #역점사업

- 돌봄·교통·의료 지원 '기본사회'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 시민의 숨은길 완성·붕괴위험지역 정비
- 27개동 주민자치회 전환 통한 자치 역량 강화
- 문화예술 콘텐츠 다변화 및 인문학 확산



## 2025 새해설계

## 문인 광주 북구청장

**돌봄·교통·의료 '기본사회' 대전환 원년  
경제 활성화·상인 자생력 강화 앞장서  
생태친화·안전도시 '북구' 조성에 박차  
문화 예술·주민 자치 선도 비전 내미쳐  
“북구민 곁에서 목소리 귀기울이겠다”**

“2025년은 대전환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대전환의 길을 구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북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전환' 비전을 제시하며, 올해를 주민 체감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청장은 돌봄, 교통, 의료 등 3대 기본권 분야를 중심으로 한 5대 핵심 시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북구의 출발을 알렸다.

먼저 북구는 돌봄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광주 자치구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도입해, 6개월 이상 북구에 거주한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당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 또한,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인력이 병원 진료와 귀가까지 동행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아이 맘 교통비 지원을 실시해 영아를 동반한 2000가구에 콜택시 이용비 5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생활편의 로드맵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내 돌봄 종사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은 감염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

문 청장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먼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에서 필수적이고 충분하며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구정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과감하고 신속한 현장 밀착 지원으로 장기화한 경제위기 극복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문 청장은 “광주 자치구 최초로 제정한 ‘광주 북구 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소비생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공동체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AI 기반 소상공인 윈스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생태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강화하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로 성장함을 통해 기후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문 청장은 “군왕봉에서 삼각산을 잇는 시민의 숨은길 4구간을 조속히 추진해,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

이어지는 23.5km의 도심 속 자연 친화 공간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라며 “침수 피해 예방 사업 6곳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추진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항구적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성한 주민 자치 역량을 바탕으로, 구민과 함께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문 청장은 “27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시대의 초석이 다져졌다”며 “마을 의제 실현을 지원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한 주민 역량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전국의 주민자치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 다변화를 위해 혁신을 추구하며, 지역 특성과 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문 청장은 “역량 있는 지역 작가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무등 문학상’을 지속 운영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인문학에 대한 구민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독서 활동, 문학기행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북구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활 SOC 시설이 구민들의 삶의 품격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채우는 북구’를 넘어 이제는 ‘누리는 북구’로의 변화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복안도 내비쳤다.

문 청장은 “여러 민생 지표의 어두운 전망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소통으로 길을 열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 여러분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현장 생활 행정가로서 북구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묵묵히 걸어가겠다”며 “더 가까이 구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대전환의 한 해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 서구,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 성공 이끈다

### ‘창업지원사업 합격의 정석’ 호응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창업가 지원

광주 서구가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창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구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며 지역 내 창업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구는 2022년부터 ‘창업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창업지원사업 선정



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돕고 있다.

지난 16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창업지원사업 합격의 정석’ 행사에는 초기 창업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들이 참가자들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1:1 멘토링을 진행했다.

또한 서구는 스타트업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가들에게 입주 공간 지원과 맞춤형 멘토링 등 종합적인 창업 지원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년점포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의 비용 부담을 덜었으며, 외식업 창업을 돕는 ‘청년외식창업 아카데미’도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명장성공스쿨’은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화제가 된 대한민국 명장 안유성 대표(가매일식)와 제과제빵 분야의 명장 마옥천 대표(베비에르)가 직접 강연에 나서 큰 인기를 끌었다.

정명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년 창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성아 기자

## 동구, 임산부·영유아 가정 대상 ‘맘택시’ 운영

### 월 최대 교통비 3만원 지원

광주 동구는 올해도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동구맘택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동구맘택시’는 관내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 임산부·영유아 가정의 이동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의료목적 외출 시 교통비(택시 요금)를 지원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동구 맘택시’는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0~24개월)이라면 누구든지 보건소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또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동구는 지난해부터 교통비 지원 금액을 월 최대 3만원으로 증액하고, 영유아 월령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률 86.9%를 받으며 높은 호응을 보였다.

민현기 기자

## 광산구, 민생경제 회복 지역사회 역량 총결집

### 오는 22일 비상경제대책 회의

광주 광산구가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광산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구청 2층 상황실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광산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비상경제대책 회의는 12·3비상계엄 사태, 지속된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각계의 역량을 모으고, 협력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회의에는 경제단체, 학계, 의료계, 종교계 등 지역 30여 개 분야 대표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 광산구는 △골

목상권 소비 촉진 △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 △농·축산물 구매 활성화 △지역 생산·판매 물품 우선 구매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광산구는 회의의 논의 결과를 2025년 민생경제 회복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공동체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민생경제를 구할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 남구, 진월동에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나서

### 북카페·노래방·사진부스·PC존 등

광주 남구 진월동에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청소년 자율공간이 들어선다.

19일 남구는 진월동 로컬푸드 직매장 2층에 청소년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전용 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공간은 방과 후 청소년들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남구는 관내 효덕초등학교와 진남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설계 과정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에는 약 3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실내 전용면적 111㎡ 규모로 조성된다.공사는 오는 2월 시작해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5월 중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부는 북카페, 코인 노래방, 즉석사진부스, 게임 및 PC존 등으로 구성되며, 야외 테라스에는 인조 잔디 위에 텐트를 설치한 캠핑장도 마련되는 등 청소년들의 관심을 반영한 다채로운 시설로 꾸며질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